



동부화재는 **가족사랑**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동부금융센터)  
 www.idongbu.com  
 계약·사고접수 상담 1588.0100  
 TM 전용상품 상담 1566.0100  
 보험계약대출·신용대출 상담 1544.0100



(프로미라이프)는 전문 컨설팅 능력을 갖춘 동부화재 PA(Prime Agent)가 우수 고객님께 드리는 생활 정보지입니다.

2016. 가을호 vol.35

초저금리시대를 위한  
 하반기 재테크 아이디어



Membership magazine  
동부화재가 드리는 우수고객을 위한 생활정보지

## CONTENTS

- Special Theme** 04 마음 나누기 · 1 내 맘 모르는 가족, 통해야 합니다!  
08 마음 나누기 · 2 부러지지 않는 마음, 우리 아이 자존감 높이기  
12 마음 나누기 · 3 누구에게나 공평한 삶의 고비, 마음먹기 나름  
14 마음 나누기 · 4 지친 마음을 위한 여행 비우고 다시 채우는 솔루션 힐링 마을  
16 마음우체통 가족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요\_ 마음우체통
- +Economic** 18 이슈 재테크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생존법은?  
22 실전 재테크 하반기 투자 아이디어  
24 투자 insight 새로운 투자 대안 로보어드바이저
- +Promy** 28 Insurance 유병자 · 고령자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 어떤 걸 고를까?  
32 Know-How Do-How 금융정보 서비스 제대로 활용하기  
34 Promy Tip 소중한 가족 건강을 위하여 '참좋은가족건강보험'
- News** 38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열로카펫' 서울시에 100개소 설치 지원



발행일 2016년 8월 10일(통권 35호)·비매품

발행인 김영남 편집인 김영만 발행처 동부화재 홍보팀 02.3011.321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동부금융센터)

기획·디자인 (주)이코노믹리뷰 02.6321.3040 인쇄 강원일보사 02.733.7228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프리미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or You

## 동부화재와 여유로운 가을 맞이하세요



늘 곁에 있어  
고마움과 소중함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족  
이번 가을엔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건 어떨까요?  
늘 내 편이 되어주는 나의 가족  
일상이 든든해지는 힘입니다.  
가족사랑의 시작은 동부화재입니다.

for you

from

# 내 맘 모르는 가족, 通해야 합니다!

‘모든 게 지옥같이 힘들 때, 조금도 움찔하지 않고 너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다.’

소설가 짐 버처의 말이다. 문제는 항상 내 편이라고 믿은 가족이

순간순간 남보다 멀고 낯설게 느껴진다는 데 있다.

‘내 맘이 곧 네 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 마음을 내비치는 가족.

이유는 명쾌하다.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글 · 이은정 기자



## 소통에도 노력이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10명 중 3명(32.5%)이 가족 간 갈등을 경험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는 3세대가구, 부부가구, 자녀양육가구일수록 가족 간 갈등 경험이 더 많았다. 이처럼 가족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서로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 이른바 ‘투명가족’이 점점 늘다. 언제나 내 편이라고 믿었던 가족이 왜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것일까. 이유는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니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알 리 만무하다. 소통이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불행히도 소통과 대화는 가족 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이뤄진다.

## 가깝고도 먼 관계, 가족

우리 가족은 왜 대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가족은 수가 적고 접촉시간이 길어 서로에 대한 영향이 크다. 애정과 혈연관계에 있으므로 공동운명체로서 일체감이 강해 상호 의존도 또한 크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가족이니까 스스로 알아주길 바라고 항상 내 편이길 바라는 마음에 그냥 지나치기 쉽다는 것이다. 가족 간 의사소통은 다른 집단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때로는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게 진행되기 쉽다. 서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더 감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과는

당연히 표현하는 것을 가족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가족이 서로 역할을 달리하는 구성원들이 하나의 체계, 즉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돼 있다. 서로의 역할이 있고, 이런 시스템 내에서 소통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 공직적 언어로 대화를

가족 간 대화를 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잘 들으려 노력해야 한다.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나’를 주어로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게 좋다. 이른바 ‘나 전달법’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희망사항 등을 표현하므로 가족 간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칭찬과 격려, 공감, 부탁,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격이나 명령, 비난, 힐난 같은 부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에게 열등감이나 죄의식을 갖게 하고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 같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달한다면 가족 간 대화가 막힘이 없고 ‘내 맘이 곧 네 맘’이 될 것이다.

Communication 1

부부 간

마음 거리를 좁히는 대화

우리나라 부부 3쌍 중 1쌍이 하루에 채 30 분도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사실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3년 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부 간 대화 시간이 하루에 30분 이하인 사람이 전체의 38.4%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거나, 말만 하면 싸워서 피하게 된다는 이유를 댔다. 부부 간 대화 단절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족 전체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때문에 부부 간 대화를 늘리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부부 간 대화가 단절된 이유 중에는 잘못된 대화 습관으로 상대방의 화를 불러일으킨 경우가 많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지 않고 내뱉듯이 말하기 쉽상이다.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잘못된 대화 습관이다. 이럴 경우, 상대방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Communication 2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마음 살피는 대화

바깥일에 전념하는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대화 단절의 주된 이유가 된다. 오랜 시간 대화하지 않으면 자녀와 공통된 주제를 찾기 힘들고 이것이 또 다른 대화 단절을 야기하며 악순환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자녀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녀와 쌍방향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선, 자녀와 대화를 시작할 때에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주제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정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설교나 훈계해야겠다고 접근하면 자녀는 불편해하며 금세 입을 닫게 된다.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보다,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표현하도록 기다려주고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혹은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자녀의 이야기를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하며 말을 끊어버리면 대화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Communication 3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마음 살피는 대화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녀도 나름의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것을 헤아리기보다 무조건 어머니의 뜻을 강요하는 것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한 잘못된 발상이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명령하거나 지시, 경고나 위협, 미리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훈계나 설교, 충고 등을 강요하기보다, 긍정의 언어로 자녀를 따듯하게 포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녀와 사소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대화법이다. 작은 것을 칭찬하거나 별 일 아니더라도 자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재를 이야기하면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

평범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들의 특징은 바로 잘 못하는 1개에 주목한다고 한다. 기다려주고 장점을 바라보는 지혜가 대화 속에서도 필요하다.



# 부러지지 않는 마음, 우리 아이 자존감 높이기

뭐니뭐니해도 최근 몇 년 사이 육아의 가장 큰 화두는 '자존감 형성'이다.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 극복하고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큰 힘 '자존감'.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그 위대한 유산에 대해 알아보자.

글 · 이은정 기자



## 성공의 경험이 자존감의 시작이다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 '자존감'. 명확한 계산이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자존감 높이는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어렵고 막연하다. 자존감의 정도를 알 수 있는 특징들에 맞추어 아이를 판단해보고 시작한다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다.



### 자존감이 높은 아이의 특징

-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 새로운 일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다
- 대인관계능력이 좋다
- 공감 능력이 우수하다
- 실패를 잘 견뎌내고 스트레스를 잘 다룬다

###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특징

-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어 있다
- 의존성이 높다
- 눈치를 보는 편이다
-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나 새로운 장소를 꺼린다
- 실패했을 때 쉽게 좌절하거나 운다
- 허풍이나 과장이 많다
- 남을 괴롭힌다

아이를 붙잡고 “너는 훌륭하고 멋진 아이야. 아빠 엄마는 언제나 너를 믿고, 너 무엇이든지 잘해낼 수 있단다”하고 믿음을 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아주 사소한 도전과 성공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그 시기는 아이가 불타오르는 도전정신을 갖기도 이전인, 호기심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영아기에서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뒤집기와 손가락 쥐기, 앉기, 서기, 걷기 등 아이가 성장하며 어렵히 하겠거나 싫은 근육의 발달 과정에서부터 물건 옮기기, 컵에 물을 부어보기, 과일이 담긴 접시를 옮겨보기 등 생활의 곳곳에서 아이의 도전은 하루에 수십 번씩 일어난다. 이때 많은 부모들이 하는 실수는 아이가 다 칠까 봐, 혹은 물건이 망가질까 봐 친절하게 아이를 대신하여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것인데, 사실 이는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들에 대해 많은 제약을 받을수록 아이는 자신이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는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에 대한 외부의 판단이나 평가가 진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존감과 동시에 자기효율성도 떨어지는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시기의 가족은 관대한 마음으로 아이의 모든 시도를 지켜봐 주고, 그것이 차마 도전이라 생각되기 힘든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진심을 다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 색다른 성공을 맛볼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자극을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단, 아이가 어려운 과제를 성공했을 때 느끼는 쾌감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쉬운 것, 익숙한 것부터 반복적으로 시도하여 쉽게 성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자.

**관심의 진정성은 아이가 먼저 느낀다**

지금의 배우자와 연애할 때를 돌아켜보자. 사소한 말 한 마디도 흘려 듣지 않고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마주 보았을 것이다. 또 상대가 나에게 소홀하거나 내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한 없이 서운해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아이는 지금 그때의 당신보다 더 뜨겁게 아빠와 엄마를 사랑하고 있다.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을 표하는 방법으로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점심 맛있게 먹었어?” “간식은 뭐 먹었어?”라고 질문하지만 매번 같은 질문과 대답에 따른 단조로운 리액션을 아이가 눈치채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아이가 그 질문을 듣고 어제와 비슷한

대답을 한다든가 시큰둥한 표정을 보인다면 당신의 진정성 없는 관심 표현이 민낯을 들킨 것이다. 한 사람의 성인을 대하듯 밀도 높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보자. 아이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질문거리가 없다면 어느 날은 부모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주자. 아이가 부모에 대해 알고 느끼기 시작하면 유대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자신이 의지하거나 자신보다 늘 더 큰 존재라고 느낀 상대가 하루의 일과나 어릴 적 일화들을 들려주며 대등한 화자로 대화의 질이 발전되면 아이의 자존감도 함께 성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이에게 칭찬을 할 때에도 기계적이거나 습관적인 칭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잘했어” “멋지다” “예쁘네” “니가 최이야”와 같은 막연한 칭찬보다, 아이의 행동이나 숨은 뜻을 헤아리는 구체적인 칭찬이 좋다. 특히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 칭찬하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아이의 선의를 알아채주는 것이 자존감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걱정을 비워내면 행복이 자란다**

가끔씩은 눈빛이 백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때가 있다. 부모가 부모 기준에서 아이의 부족함이나 산만함, 예민함 등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바라보는 걱정스러운 눈빛이 아이의 기를 꺾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민하고 섬세하다. 그래서 늘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의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큰 문제가 있나 봐’ ‘나는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가 봐’ 혹은 ‘부족한가 봐’라고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어떤 상황에서든 위축된 행동과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 또 걱정은 부모의 자존감마저 갉아 먹는데 아이에 대한 걱정이 고스란히 부모에게로 옮겨져 ‘내가 잘못 키

워 그런 게 아닐까’ ‘더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나’ ‘이미 늦어버린 걸까’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된다. 스스로를 못 미더워하는 부모로부터 아이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없다. 아이가 매일 좋은 컨디션일 수 없고, 늘 모든 일에 즐겁게 임할 수도 없다. 과제를 잘 해내고 즐거운 날에는 함께 웃고 마음껏 칭찬해주고, 힘들어하고 처지는 날에는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안이 되어주자. 부모가 아이에게 언제든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어야 아이가 어디서든 당당한 마음으로 활기차게 시간을 누릴 수 있다.



# 누구에게나 공평한 삶의 고비, 마음먹기 나름

삶을 따라 찬찬히 걷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비들을 만나게 된다.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춘기, 거대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과도기,

나이 들에 따라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 등이 그러하다.

이런 고비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다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면

좀 더 여유 있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글 · 이은정 기자

## 대2병

**“지금 완벽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

중2병이 특정 연령대의 특성을 표현한 것이라면, 대2병은 취업난 같은 시대상황이 빚은 말이다. 여유 있는 대학 1학년 생활을 보낸 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한 현실 사이에서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2학년 시절이 지나간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취업의 압박을 피부로 느끼는 이른바 ‘사망년’(3학년)이 될 뿐이다. 때문에 이 시기는 불안감과 고민이 깊어지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동반하게 된다. 대2병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지 말고, 스스로 성찰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기정체성, 가치관을 확고히 세워야 혼란스러운 상황을 딛고 자신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친구나 선배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거나 이미 극복한 선배들과의 고민 상담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스스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사소한 일에서라도 뿌듯함, 편안함, 행복감을 느끼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거대한 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다독여보자. “미래나 꿈에 대해 지금 완벽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 길은 어디로든 열려있어.”

## 사춘기

**“반항은 당연해! 다만 널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10대에 겪는 사춘기는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코스다. 사춘기의 정점은 흔히 말하는 중2병으로 대변된다. 중학교 2학년을 전후한 사춘기 청소년들이 겪는 혼란이나 불안 같은 심리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이때는 감수성이나 허세, 자의식이 최고조에 달한다. 이 시기에는 반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부모와 분리, 독립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은 부모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부모는 자신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시기라고 조언한다. 때문에 사춘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려면 청소년과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개성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부모는 자녀의 개성을 존중해줄 수 있어야 한다. 또, 부모는 긍정의 표현으로 자녀에게 다가가기 찬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사랑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설령 자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흥분한 상태로 다그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자녀의 말에 좀 더 귀를 열어 야 한다. 뾰족한 날을 세운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자. “반항하는 건 당연한 거야. 다만 우리가 널 사랑한다는 것은 잊지 마.”

## 갱년기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천천히, 여유 있게 겪으면 돼”**

갱년기는 나이가 들어 생식과 내분비기능이 떨어지는 시기다. 신진대사능력과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하면서 이에 따른 심리적 변화 또한 크게 겪는다. 이 시기를 제2의 사춘기, 중년의 위기 등으로 부르는 게 이 때문이다. 갱년기를 흔히 여성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남성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단지 여성에 비해 덜하다고 느낄 뿐이다. 대체로 여성은 40대 후반 폐경을 전후로, 남성은 객관적인 지표 없이 50대 후반에 이런 고비를 만난다. 갱년기의 심리 변화 중 가장 큰 문제는 상실감이다. 가족이나 지인의 사망, 신체기능의 쇠퇴,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불안이나 불안, 장성한 자녀들로부터 느끼는 소외감, 공허함, 좌절 등을 느끼며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이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이 시기를 사춘기와 마찬가지로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만, 사춘기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갱년기는 모든 것을 스스로 이기고 극복해야 한다는 게 다르다. 스스로 주문을 걸어보자.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천천히, 여유 있게 극복할 수 있어.” 창조적인 취미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일상에서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갱년기에는 가족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가족끼리 끊임없이 대화하며 친밀도를 높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 지친 마음을 위한 여행 비우고 다시 채우는 솔루션 힐링 마을

사사라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주변의 일들부터 연일 뉴스에 등장하는 테러와 물지 마 범죄,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까지 몸과 마음을 힐링해야 하는 이유는 무궁무진하다. '힐링'에 관한 수많은 서적과 강연들이 쏟아졌지만 현대인들은 여전히 마음을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난 힐링마을에서 나만의 삼시세끼를 만들어보자.

글 · 손지혜 기자

## ◀ 웰에이징을 위한 힐리언스 선마을

힐링(healing)과 과학(science)의 조합으로 이름 지어진 힐리언스 선마을.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이시형 박사가 총장으로 있는 웰에이징 힐링 리조트인 이곳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한 현대인의 식습관, 마음습관, 생활리듬습관, 운동습관 등 4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통해 자기치유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통의 힐링 마을보다 체계적이고 개인맞춤형인 여러 프로그램들이 특징이므로 꼭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하자. 선마을에서는 첨가되지 않은 자연식을 30회씩 꼭꼭 씹어 30분 동안 먹도록 하는 모래시계를 사용하는가 하면, 숲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요가와 명상을 한다. 핸드폰과 인터넷의 사용은 제한되어 있는 등 지켜야 하는 규칙 등이 꽤 있지만 반나절이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고 더없이 자유로운 몸과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밤이면 힐링 카바에서 모닥불을 피우며 고구마, 감자 등을 먹으며 편안하고 따뜻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한국 10대 테마관광 치유코스'이자, 국내 최초 민영 1호 치유의 숲으로 선정된 이곳의 자연은 그 자체로 찾는 이들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선물한다.

홈페이지 : <http://www.healience.co.kr>

주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종자산길 122

## 깊은 산 속 고요한 안덕 힐링마을



전라북도 완주의 모악산 산자락에 자리 잡은 '안덕마을'은 깊고 고요한 산 속에서 수려한 산세와 맑은 자연을 깊숙이 들이킬 수 있는 힐링 체험마을이다. 모악산 아래 4개 마을이 힘을 합쳐 건강과 힐링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한켠에는 안덕마을에서 꼭 체험해야 할 후끈 후끈 한증막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느릅나무 껍질과 솔뿌리, 당귀 등 여러 한약재를 달인 물로 황토흙을 반죽해 만들었다는 한증막에서 땀을 배출한 후 한증막 건물과 이어진 '옛금광굴'로 가벼운 산책을 하면 놀랄 만큼 가벼워진 몸과 발걸음을 느낀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아기자기한 레일바이크와 쥘이어 등을 즐길 수 있고, 내운암천과 숲길을 따라 걷는 '건강힐링녹색길'에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흙 냄새를 맡으며 편안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홈페이지 : <http://anduk.modoo.at>

주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90번지

## 내 자신과 만나는 미항사 템플스테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템플스테이가 시작되었고, 최초로 개방된 곳이 바로 해남 땅끝마을에 자리잡은 미항사이다.

14년이라는 시간이 쌓아 올린 노력은 이곳을 찾는 이들로부터 '자극적이지 않은' 그러면서도 '충만한 시간들'이라는 응답을 받고 있다. 연중 내내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 참선과 자유수행, 공양, 예불을 드리며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불교의 참된 평온을 만나는 '참 사람의 향기'는 7박 8일 동안 매일 6시간의 참선수행을 하며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고,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는 방법을 깨우쳐나간다. 특히 수행 기간 내내 수행문답시간 이외에는 말을 하지 않는 묵언 수행을 하므로 더욱 내밀하게 자신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홈페이지 : <http://www.mihwangsa.com>

주소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미항사길 164

가족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요

# 가족사랑 마음우체통

늘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무심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가족에게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내보세요. 동부화재 '가족사랑 마음우체통'은 고객님의  
가족사랑 메시지를 E-mail,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To. 사랑하는 딸

### 딸이 곁에 있어서 엄마는

#### 너무 든든하고 행복해♥

밑에 두 동생들 챙기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불평불만 없이 옆에서 엄마 도와주는 모습에 대견하고 기특함을 느끼게 되네. 엄마가 직장 다닌다고 너랑 어린시절을 같이 못 보낸게 늘 마음에 걸려. 지금은 동생들 때문에 너에게 신경을 많이 못써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딸은 늘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해줘서 고맙고 미안해.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From. 부족한 엄마



To. 엄마

### 나를 믿어준 엄마, 고맙습니다.

18살 평범한 여학생과 다르게 학교도 자퇴하고 다 크지도 않은 딸이 자취한다고 하는데 날 믿고 허락해준거 고마워요. 엄마가 매번 반찬 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엄마가 가면 늘 울어요. 엄마도 여자일 때가 있었고 늘 여자이고 싶을텐데 많은 걸 포기하고 내 엄마가 되어줘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나 꼭 고시 통과하고 내 꿈 이룰수 있게 노력할게요. 사랑해 엄마♥

From. 막내딸 유나



To. 존경하는 부모님

### 우릴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 사랑합니다!

매서운 새벽 바람을 맞아가며 음식물 쓰레기와 매일 전쟁을 치르시는 아버지.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형제 공부시키느라 지금껏 허리 한번 못 펴시고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시장에서 손수레 끌며 쉬는 날 없이 길에서 커피를 파셨던 어머니, 두 분 모두 지금껏 키워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From. 아들




To. 사랑하는 아빠

### 엄마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 존경해요 아빠♥

고등학교 때 자취방에 아빠가 두고 간 빨간 하트 모양의 손카드를 받아보고 아빠한테 직접 손 편지를 써보기를 참 오래간만이야. 엄마가 아파서 간호하시느라 짐을 한가득 메고 병원을 왔다갔다하는 아빠의 무거운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 아빠가 엄마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서 엄마 이젠 우리 곁에서 얘기같이 짧은 머리를 하고 해맑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참 행복해.

From. 큰딸



**동부화재 '가족사랑사이트'에서 가족사랑을 실천하세요**

동부화재는 가족사랑을 선도하는 대표 손해보험사로서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가족사랑사이트(idongbu-promy.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사랑사이트는 고객이 직접 가족사랑을 키우고 지킬 수 있도록 △스토리북 △프로모션 △게시판 △라이브러리 항목에 걸쳐 다양한 가족사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음우체통, 가족사랑 지수 테스트, 프로미 탄생 스토리 공유 이벤트 등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이트 접속방법** : PC\_ <http://www.idongbu-promy.com>  
Mobile\_ <http://m.idongbu-promy.com>

##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생존법은? 주식·부동산 비중 줄이고 금리 연동 상품에 투자하라

지난 6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Brexit) 투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은 당분간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지난 6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 조정했다. 이 같은 초저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생존법을 알아본다.

글 · 강경완 W에셋 일산센터 지점장



기준금리는 금융시장의 지표다.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결정에 기준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또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주식시장에 투입되는 유동성도 달라지며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대출금리가 낮아져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도 커진다. 기준금리 1.25% 사상 최저 시대,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미국, 9월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 높다

단일 국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30%에 달할 정도로 미국은 세계 패권국가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만큼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글로벌 금융경제의 움직임도 바뀐다. 금융시장으로 투자되는 자금이 실시간 각국으로 이동한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미국 금리가 높을수록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인 달러에 투자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국 채권 등으로 몰려들게 된다. 즉 미국의 기준금리가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동결,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동조화현상을 흔히 커플링(Coupling)이라 한다. 이 커플링 현상으로 인해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에서 0.5% 수준



이다. 미국은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져 있다. 각 주마다 금융정책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도 소폭 차이가 발생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바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고용시장의 안정이며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다. 고용시장이 안정되어 실업률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준금리를 올려 그동안 낮춘 금리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의미다. 유동성, 즉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급격히 물가가 상승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 발생 확률이 증가하게 되며, 인플레이션은 급여 생활을 하는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낮추게 된다. 실질임금이 낮아지면 다시 고용시장을 위축시킬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고용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금리를 조정한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5%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은 실업률이 5.5% 이하이면 완전 고용상태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미국의 고용

시장은 안정되어 있는 셈이다. 금리 인상 여론의 무게를 실어준다.

금융시장은 불안정하다. 기존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이 6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고용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는 게 금리 인상 예측의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을 미뤘다. 이는 지난 8월 23일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이 가장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브렉시트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한다. 유럽연합은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를 쓴다. 유로존에 포함된 국가들이 단일 화폐를 사용하는 하나의 구역(Zone)으로 묶고 규모를 키워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자 유럽연합에서 독일 다음으로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브렉시트를 지난 6월 23일 국민투표에 붙였고,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브렉시트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이라고 해도 브렉시트에 대한 결과와 영향을 확인하고 금융시장이 안정된 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문가들은 미국이 9월 이후에나 기준금리를 연내 1번 0.25%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주식과 부동산 자산 비중을 낮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이며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5%다. 1%포인트밖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이 0.25%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

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는 0.75%포인트로 줄어든다. 미국은 세계 패권국가로 가장 안정성이 높다. 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달러화는 강세를 보인다. 우리나라에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 환차손 위험까지 부담하며 투자할 외국인들은 별로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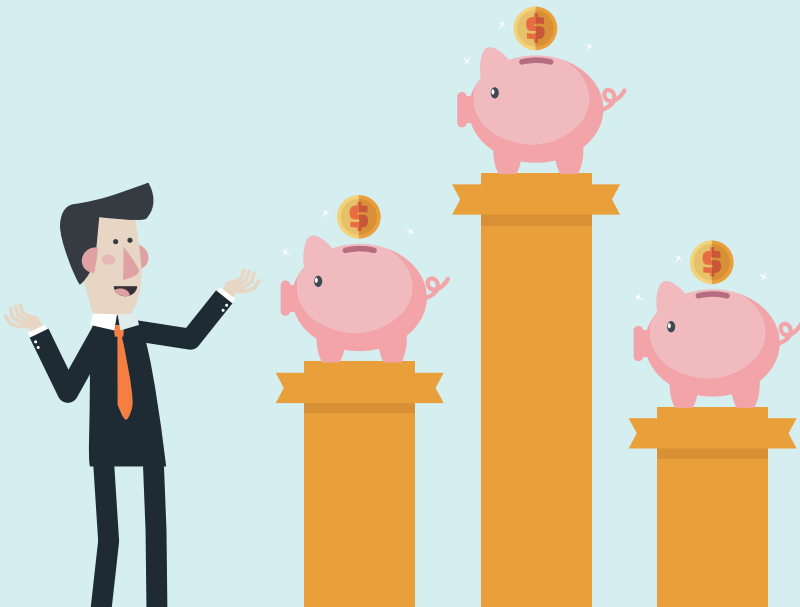
미국 금리 인상 시점과 함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썰물처럼 급격히 빠져나갈 것이며, 주식시장은 급랭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 주식투자 비중을 점차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하지 않으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낮아지게 되며, 이는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발표할 확률이 높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장 먼저 예금금리는 물론 대출금리도 인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만 1200조가 넘는다. 2011년 이후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친화 정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은 뛰었다. 사람들은 저금리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은행에 많은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입했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며, 더 이상 이자를 상환할 수 없는 사람부터 부동산을 매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매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시차

를 두고 부동산 가격도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금리가 인상된다면?**

저금리로 발생한 유동성으로 인해 2011년 이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시장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할 뿐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은 커녕 저금리라는 진통제 투여로 간신히 생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만약 금리가 인상된다면, 주식부터 시작해 부동산으로 연쇄적인 자산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급적 투자에서 쉬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도 금융시장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등 장기투자 상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겠다는 것과 동의어로, 달러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달러화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달러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비중을 높이면 환차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 하반기 투자아이디어 새로운 투자기회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내 편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 운용할 때 가장 어려운 시기는 증시가 박스장 안에 갇혀 있을 때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국내 증시는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익률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적극적 투자자라면 차라리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투자전략을 세우기가 더 용이하기도 하다.

글 · 구영대 (주) National Financial Planning-NFP 금융센터장

2016년 최대 이슈는 아마도 브렉시트일 것이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영국 국민투표의 결과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2016년 하반기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위험 가운데 기회가 있다고, 브렉시트로 인해 인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먼저 고려해 보고, 그것을 역발상 투자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 브렉시트로 인한 앞으로의 흐름은?

영국은 EU 탈퇴로 인해 최대 교역상대국인 EU 시장 및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비EU시장(53개 경제권)에 대한 무역장벽이 강화되어 대외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영국의 금융서비스 산업은 비관세장벽이 높아져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영국은 그동안 유럽 시장을 겨냥한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영국에 잔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브렉시트 결과를 초래했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이민자 유입은 제한될 것이고 이는 영국의 노동력을 약화시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외에 앞으로 증시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첫째**,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독립 이슈 제기 가능성이다. 브렉시트 이후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EU 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2014년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독립 관련 이슈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국의 EU 탈퇴로 글로벌 경제 및 안보 등에서 EU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도 자국 은행들의 부실 채권 구제를 위해 EU 규정을 무시하고 수십억 유로의 공적 자금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셋째**, 영국의 부동산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 2016년 6월 영국 주택 가격은 2009년 2월 대비 약 40%가 상승하였다. 더욱이 런던 주택 가격은 2009년 3분기 대비 약 78%가 상승하였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파운드화 급락 및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부동산 시장의 펀드런(대규모 펀드자금 이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영국 부동산 가치는 향후 3년간 약 20% 급락할 것으로도 전망하였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자금경색으로 거래정지 위기에 직면한 영국 부동산회사들이 자산 급매에 나서면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40% 이상 급락했는데, 이는 부동산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준 은행들로 신용위기가 번질 수도 있다.

**넷째**, PIGS(Portugal, Italy, Greece, Spain) 국가들의 국제 만기 도래규모가 2016년 7월부터 많다.

**다섯째**, 브렉시트와 맞물려 11월 미국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미국 대선이라는 이

벤트 자체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증시에는 부정적이다. 특히 공화당의 극우성향을 보이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전반의 투자심리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 역시 예측은 예측일 뿐

하지만 글로벌 증시는 이러한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책 공조와 각국 중앙은행들의 부양책 기대감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신흥국 증시는 상대적 강세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지는 것은, 이미 전 세계 투자자들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보여왔던 다양한 시장 리스크에 어느 정도 적응하여 도리어 투자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을 보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선호가 공존하는 양면성을 보이는 게 그 한 예이다. 지킬 것은 지키면서 역사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자산은 동시에 매수하고 있다.

국내 증시의 경우도 브렉시트 충격은 한여름 밤의 꿈과 같이 지나갔다. 증시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없지만 증시의 하단을 받쳐줄 요소들이 많다. 정부의 추경안 발표와 KOSPI 기업들의 실적도 미미하지만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6월 30일 시작된 공모도 공시제 시행도 증시에 우호적이다. 특히 글로벌 증시에 가장 변수로 작용하였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연말로 미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급격

한 금리인상 기조가 완화되어 향후 금리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충격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자산 가격 흐름을 보라

투자마인드: 잔고상의 숫자를 보지 말고, 투자했던 자산의 가격 흐름(차트)을 보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의 심리변화도 동일하게 증가한다. 어떤 경우에는 근거 없이 과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숫자는 투자자를 흥분하게 만든다. 도리어 그림은 객관성을 준다. 과거 대비 지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 투자는 가능한 기계적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감정이 섞이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위에서 보듯이 2016년 하반기 시장 흐름은 악재와 호재가 뒤섞여서 그 안에서 투자자들의 투심을 흔들며 놓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 불허하다. 수많은 시장 전망은 그저 예측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예측은 예측일 뿐이다. 단순히 내가 투자한 자산이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자신만의 바로미터로 그것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는 가능한 객관적이어야겠지만, 투자의 세계는 결국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관심 없는 즉, 수요가 별로 없는 자산은 가격이 싸다. 하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자산들은 항상 순서를 달리할 뿐 가격 사이클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고, 투자의 대가이며 많은 투자자들의 존경을 받는 워런 버핏은 야구팀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치는 4번 타자이다. 그는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자산을 자신이 생각하는 가격까지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 즉 때를 기다린다. 자산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증시의 변동성은 그저 과정일 뿐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워런 버핏처럼 되지 못하는 이유는, 즉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빠른 성공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 미국 주택시장에 관심을 갖자

주택건설에 주로 사용되는 목재 가격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또한 임대료 상승이 가파르다. 현재 미국은 2000년 이후 매매가 대비 임대가격이 최고 수준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임대 수요에 있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주택 실수요자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전에 서둘러 내 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된 장기 사이클에서 임대/매매가격 비율은 주택착공건수 및 신규주택 매매 증가율에 선행했다. 또한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주거용 건설시장 및 주택 관련 용품 업체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투자상품은 정보가 부족한 미국 개별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REIT(부동산투

자신탭) 관련 ETF 또는 홈빌더/건설 관련 ETF가 유효하다 생각된다.

### 미국 또는 글로벌 헬스케어 지수 관련 투자상품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자

작년 9월 말,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의 약가 인하 이슈 이후 미국의 헬스케어 주식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였다. S&P 500 바이오 및 제약업종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발언은 헬스케어 증시 조정에 빌미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헬스케어 시장의 시대적 변화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글로벌 경기의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민간 소비이다. 소비의 원천이 소득이기 때문에 연령별 소득이 중요한데, 금융위기 이후 55~64세 연령층의 임금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 젊은 베이비부머(1956~1964년 출생) 세대가 중요한 이유는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한 소비층이라는 것이다. 소비 항목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비중(약 60%)을 제외한 의료비 비중은 55세 미만 연령층은 10% 내외인 반면 55~64세는 17%, 65세 이상은 32%이다. 금융위기 이후 헬스케어 물가가 20% 이상 상승하면서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저물가 시대에 계속해서 전체 물가와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가격 상승은 헬스케어 산업 성장을 견인한다. 2020년 미국 전체 GDP의 17%, 개인소비의 20%에 해당하는 규모가 헬스케어를 통해 발생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5~64

세 연령층의 헬스케어 지출 금액은 매년 6%씩 증가하고 있어서 이는 헬스케어 투자에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된다.

### TIP

#### 하반기 투자 기본 원칙

전세계 경제 성장률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더욱 하락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시장을 부양하려고 한다. 워런 버핏이 최근 인터뷰했듯이 만약 제로금리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증시에서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100~200배로 치솟을 것이다. 즉, 앞으로 저금리 기조에서 우리 투자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포트폴리오 투자가 절실하다. 보수적 투자자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1. 개인 투자성향에 맞는 목표수익률을 정하자. 더불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지 계산하자. 더이상 예적금으로는 자산 증식이 불가능하다.
2. 개인 금융자산의 다변화는 불가피하다. 적은 금액이라도 간접투자인 적립식 펀드를 시작하자.
3. 새로운 기회 모색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하자. 세상은 넓고 선택의 폭은 넓다.
4.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자. 리스크는 사전에 준비만 되어 있다면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 새로운 투자 대안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사람은 과연 투자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항상 합리적일까?  
인간의 행동은 때론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며, 주변 환경이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투자전문가들도 인간이다. 즉 투자의사 결정에 있어서 심리적 오류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없다.

글 · 구영대 (주) National Financial Planning-NFP 금융센터장

올해 봄, 알파고의 대국을 계기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올해 봄부터 금융권에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라는 금융상품이 기존 투자자문/운용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란 robot과 advisor의 합성어이며, 인공지능(AI) 로봇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개인고객의 정보(재정상황, 포트폴리오, 투자성향)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관리에 관해 조언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성장은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2020년에는 현재에 비해 최소 20배

이상 성장을 전망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대적 배경은 무엇일까.

### 금융 수요 성향의 변화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수요성향이 바뀌어 가고 있다. 경제 전반의 주축이 베이비부머세대에서 X세대(1965~1984년 출생한 세대)와 밀레니얼(Millennial, 1980~2000년에 출생한)세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사회/경제/문화 전반적으로 현재 X세대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밀레니얼 세대는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세대는 베이비부머세대와는 다르게 인터넷

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이며 투자전문가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직관적으로 스스로 금융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다. 2013년 메릴린치 조사에 따르면, 연령이 18~35세인 응답자 대부분이 사람에게 투자자문을 받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미국의 대표적인 로보어드바이저인 Wealthfront의 고객 90%가 50세 미만이며, 60%가 35세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단순히 경제지표만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호재와 악재가 전 세계 곳곳에서 쏟아졌다. 사람에게 의한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서비스는 이러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수많은 펀드매니저들은 시장평균수익률(시장지수)조차 이기기 어려워졌다. 미국의 경우 2012년 2월 말 대비 로보어드바이저의 계좌 수는 연평균 20.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그동안 고액자산가 위주였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일반 대중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교적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 리스크 관리 병행이 관건

이러한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에 비해 장점은 많

지만 아직은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기간이 짧아 염려되는 부분이 많다. 현재 은행권과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의 자산배분 알고리즘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블랙박스라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별 니즈에 적절하게 과연 운용이 되는지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자동화되어 있는 자산관리상품이다 보니 투자자와의 시의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은 차단될 수밖에 없고, 고객의 투자 니즈를 세세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분명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금융시장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기대를 줄 수밖에 없다.

알파고와 같이 빅데이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방대해져 가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니즈에 더욱 적합하게 변화될 것이라 기대하게 된다. 미국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해 스스로 하는 투자보다 약 4% 수익률이 더 높다고도 한다.

투자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으로 인해 분산투자가 필요하고, 금융소비자의 재무목표와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존 투자전문가와 경쟁 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적인 역할이 강조될 때 좀 더 금융소비자의 재무목표 달성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 유병자·고령자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 어떤 걸 고를까?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보험 가입이 힘들었다. 보험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병자·고령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글·강경환 W에셋 일산센터 지점장

100세 시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다가 저세상으로 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내 몸이라도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젊은 시절 바쁘게 일에 매진하며 살다가 미처 건강관리를 하지 못했거나 가족력으로 인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에 노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이런 질병에 노출되면 지금까지는 보험 가입이 거의 불가능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에 가입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보험은 사실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망보험금 위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암이나 혈관질환 등을 보장받기 위한 상품은 거의 보장이 불가능했다.

###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상품 출시

보통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을 권할 때 이런 말을 한다. 보험은 건강할 때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해야 저렴한 보험료로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으며, 만약 가입이 된다고 해도 비싼 보험료로 낮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의 위험성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물론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만성질환 유병자도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은 그동안 가입을 막았던 유병자들도 간편한 심사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는 2005년 628만 명에서 2015년 936만 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1.5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자는 1,18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70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가입률은 32.5%에 불과하다. 전체 민영보험 평균 가입률이 81.6%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정작 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보험 가입이 사실상 힘들었던 것이다.

유병자 대상의 간편심사 보험은 크게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하다. 기존 상품은 10가지가 넘는 질문에 답해야 했다. 그러나 간편심사 보험은 △최근 3개월 내에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 △2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5년 이내 암 진단·입원 및 수술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이처럼 간단한 심사 항목만 통과하면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암 등 중대한 질병은 물론 입원과 수술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5세까지 가능하다.

### 유병자보험 출시되자마자 인기

보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맞는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이 출시되자마자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별다른 마케팅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자가 줄을 이었다. 덕분에 유병자 간편심사 시장은 도입 초기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왜 보험사들은 이처럼 시장성이 높은 유병자 대상 간편심사 보험을 이제야 출시한 것일까?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한다면 통계 부족이다. 보험사들은 관련 통계가 부족해 정확한 요율 산정을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유병자 보험 개발을 꺼려왔다. 유병자들은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들보다 질병이나 사망 노출 위험이 크다. 그렇다고 보험사가 보험료를 무턱대고 높여 받을 수도 없다. 낮은 보험료로 유병자들을 가입 시키면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유병자가 소폭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즉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나이가 많은 유병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 개발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 관련 통계가 직접되어 있는 보험개발원이 유병자 관련 통계를 공개했고, 줄이어 관련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유병자 대상의 간편심사 보험은 크게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하다. △최근 3개월 내에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 △2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5년 이내 암 진단·입원 및 수술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 유병자보험 선택법은?

현재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은 틈새시장에서 대세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초기 중소형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상품이 출시되었지만 현재는 대형 생명보험사도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유병자 대상의 간편심사 보험이라고 해도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보장 범위와 특징이 다르다. 따라서 어떤 상품이 자신에게 맞는 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은 암,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등 중대한 질병을 3,000만 원 혹은 5,000만 원 한도에서 보장한다. 보장금액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각 보험사마다 그 보장 한도가 조금씩 다르다. 물론 보장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증가하게 마련이다. 질병 노출 위험이 높으며 큰 병이 걸리면 경제적 어려움에 크게 노출될수록 보장금액이 큰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만약의 사태에는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

또 가입 전에는 반드시 간편심사 보험이 아닌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 가능한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간편심사보험 보험료는 일반심사 보험의 같은 보장 대비 최대 2배 이상 보험료가 높다. 그만큼 고위험군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은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가 낮은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 후 간편심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고가 발생해도 소송 등을 남발한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만약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이미 치료 기간이 끝난 시점이 된다. 따라서 민원율이 낮고 인지도가 높은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알면 돈이 된다

# 금융정보 서비스 제대로 활용하기

재테크는 정보력 싸움이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 진짜 정보를 찾기란 어렵다.

우선 금융정보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보험소비자가 잘 알고 활용하면 유익한 금융정보 서비스를 소개한다.

글·정아람 머니플러스 기자

## 1. 미수령 연금을 확인하자

### ▶ 통합연금포털

매월 연금에 불입하지만,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또는 연금상품의 특성상 오래 전에 가입해 놓고 계약사항에 대해 있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주소지나 연락처 등의 변경으로 연금 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에서는 개인연금은 물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까지 가입한 모든 연금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여러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하지 않아도 연금납입액과 연금 수령시점, 연령별 예상 연금액, 미수령 연금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 2. 관심기업, 공시정보 빠르게 하는 방법

### ▶ 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DART)

투자대상 기업의 공시서류를 꼼꼼히 체크하는 건 투자자의 기본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최신정보를 일일이 찾아보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 경우 「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dart.fss.or.kr](http://dart.fss.or.kr))」를 이용하면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관심기업의 공시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다. 최근엔 DART의 기능이 개선되어, 투자후보 5개 회사의 주요 재무항목을 서로 쉽게 비교하는 것은 물론, 전체 상장사 재무정보도 한 번에 다운받아 분석할 수 있게 되어 투자분석이 한층 편리해졌다.

## 3. 수상한 금융회사가 있다면?

###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예컨대,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타라며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기수법이다. 만약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면 막을 수 있던 피해였다. 만약 조금이라도 수상한 금융회사가 있다면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적

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회사명을 입력하거나 업종선택 후 확인할 수 있다.

## 4. 만성질환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 유병자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고혈압과 당뇨병, 심근경색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자들도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최근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을 한 조건 등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유병자는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된 조건으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보장 범위도 암과 사망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유병자 전용 보험이 출시되면서, 만성질환자들도 모든 질병에 대한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유병자보험은 리스크가 큰 만큼, 일반보험보다 약 1.5~2배가량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문의하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5. 장기간 해외 체류 시 보험료

### 납입 중지를 신청하자

### ▶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

해외 연수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한다면, 보장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료의 납입중지를 신청해 보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중지기간 중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며, 기간 종료 시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자동으로 부활한다.

##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이용 방법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현황을 원스톱으로 조회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금융상품 한눈에」	예금, 대출, 보험 등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a href="http://finlife.fss.or.kr">http://finlife.fss.or.kr</a> ) 접속 후 상품 선택 등 희망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
「계좌이동서비스」	자동이체(보험료, 통신료 등)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	이동할 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뱅킹, Payinfo 홈페이지( <a href="http://www.payinfo.or.kr">www.payinfo.or.kr</a> )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
「금융주소 한번에」	주소(집·회사)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번에 변경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 서비스」	가입한 전체 생명·손해보험가입내역(상품명, 계약상태 등)을 한꺼번에 조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확인

자료 : 금융감독원

##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참좋은가족건강보험'

고객의 건강에 대한 니즈를 반영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을 위해 한발 더 다가가는 상품이 출시되었다.

동부화재 참좋은가족건강보험은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가입이 가능한 '참좋은' 보험상품이다.

자료제공 · 동부화재 장기상품파트



###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가족건강보험' 출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남성 흡연율이 39.3%로 사상 처음, 30%대로 떨어졌고 '금연·절주·걷기'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성인들이 늘어나는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254개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지난해 8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22만 9,6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연, 절주, 걷기의 3가지 건강 생활을 모두 실천하고 있는 성인의 비율인 건강생활 실천율은 31.6%로 14년 대비 2% 포인트 증가하여 건강을 챙기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지금까지 보험 상품은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 담보의 보장 영역 상품 위주로 판매되었고,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보험료 할인 가입이나 고객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동부화재는 고객의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가입 가능하고 고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가족건강보험'을 7월 7일 출시했다.

### 건강상태에 따라 7가지 플랜 제공

'참좋은가족건강보험'은 『일반가입자플랜』, 『비흡연가입자플랜』, 『우량가입자플랜』, 『간편고지가입자플랜』 등 7가지 플랜을 제공하여 고객이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먼저 『우량 가입자플랜』은 비흡연 및 총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BMI 등 회사에서 정한 우량체 가입 조건에 부합할 경우, 질병 사망/암 사망/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담보의 보험료를 일반 보험료 대비 최대 30% 수준 할인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우량체 가입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비흡연자이면서 회사가 정한 인수 기준을 통과할 경우 『비흡연 가입자형』을 통해 일반 보험료 대비 최대 20% 할인된 보험료로 질병 사망/암 사망/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담보를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건강한 고객뿐만 아니라 고령층이나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간편고지가입자플랜』 상품이 있어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등



의사 필요조건 여부 △최근 2년 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암 진단·입원·수술 여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거 병력에 상관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간편고지가입자플랜』의 경우 타사에서 대부분 최대 10년 갱신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참좋은가족건강보험'은 보장기간을 최대 15년 갱신으로 선택이 가능하여 보장기간은 늘리고 보험료가 변동될 가능성을 낮추었다.

### 주요 질병 보장 강화

건강한 고객부터 고령층,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세분화된 플랜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보장 내용 또한 기존 상품 대비 강화되었다. 재진단암진단비는 첫 번째 발생한 암 이후 재발하거나 전이된 암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두번째 뇌출혈진단비,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는 두번째 발생하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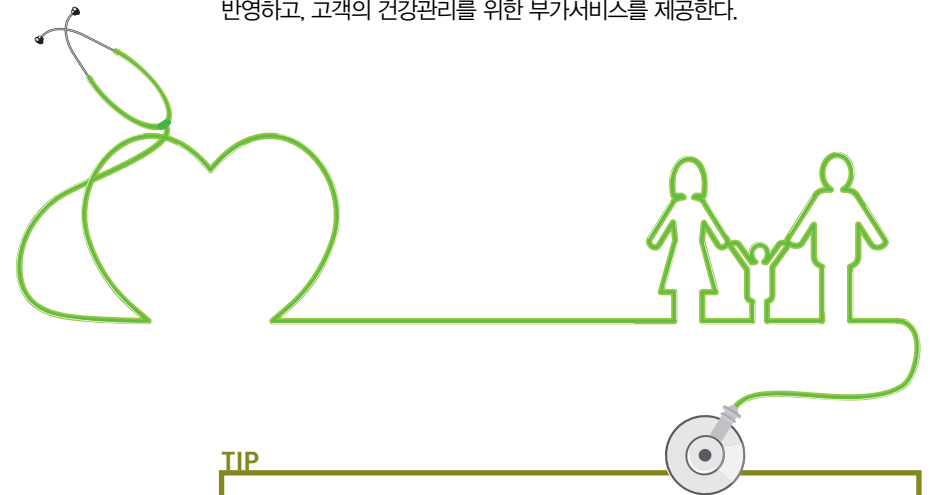
해당 담보들은 일반가입자플랜, 비흡연가입자플랜, 우량가입자플랜은 물론 간편고지가입자플랜에도 추가하여 중요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였

다. 또한, 수술의 심도 및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1~5종 수술비도 보장하여, 고객의 실질 치료비용에 가까운 수술비용도 보장한다.

### 다양한 할인 및 부가서비스 제공

한편, 등부화재 '참좋은가족건강보험'은 다양한 할인혜택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 2인 이상 가입 시 영업보험료 2% 할인, 건강관리 할인, 사망담보 고객계약 할인, 보험계약 안내자료 모바일 수령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가입하는 경우 도보 수 측정 등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건강 증진까지 기여한다.

이번에 등부화재가 출시한 '참좋은가족건강보험'은 고객의 건강에 대한 니즈를 반영하고, 고객의 건강관리를 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 TIP

####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는 '참좋은가족건강보험'

- 우량체 고객, 비흡연 고객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 고령층/유병자 고객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별도 플랜 탑재
- 주요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강화
- 고객의 평소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부가서비스 제공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옐로카펫' 서울시에 100개소 설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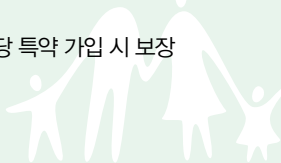


동부화재는 7월 15일 서울시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100개소 설치사업 지원 협약식을 체결하고 서울안암초등학교에 제 1호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주관하고 동부화재가 후원하는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신호대기 공간을

노란색으로 구획화해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이다. 동부화재는 앞으로 1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 100개소에 옐로카펫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부터는 전국 주요도로로 설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동부화재 추천상품 6

- 1. 내생애 든든 종합보험** 100세 시점(보통약관 보장부분 보험만기)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환급금 지급 가능.
- 2. 참좋은운전자보험** 후시 모르는 자동차 사고로부터 다양한 신체위험 및 비용손해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서비스까지 제공.
- 3. 우리아이 첫 보험** 아토피나 비염 등의 환경성 질환은 물론, 차아 치료 · 시력 이상 · 임신 출산 위험 등 자녀와 관련된 각종 위험을 종합 보장.
- 4. 가족사랑간병보험** 간병 진단비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 등으로 장수리스크 시대를 준비 가능.
- 5. 2060건강보험**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부담스러운 치과치료비를 제공.
- 6. New화재플러스보장보험** 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배상책임, 상해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  
※ 상품별 보장내용은 해당 특약 가입 시 보장됩니다.



1984년, 대한민국 최초로 운전자보험을 시작!

# 운전자보험도 역시 동부화재가 좋습니다

## 동부화재 참좋은운전자보험

1984년, 대한민국 최초로 운전자보험을 선보인 동부화재 -  
믿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도 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 동부화재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1604

차를 생각한다면 자동차보험! 가족을 생각한다면 운전자보험! 동부화재와 함께 가족의 행복을 더욱 든든하게 지키세요!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가입하신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가결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조합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금융상품의 해당원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연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발제2015-3938호(2015.12.28))